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15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령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지체들이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 계속 부흥 안에 살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5.19(목) 오전10시 구월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3차)

- ① 일 시 : 5.3(화)~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국 봉사자 온전케 하는 훈련안내

- ① 일 시 : 6.6(월)오후 7시-8일(수)12시30분
-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 ③ 대 상 : 봉사 및 봉사를 갈망하는 성도
- ④ 회 비 : 숙박 81,000원, 출퇴근 29,000원
- ⑤ 신 청 : 5.16(월)까지 지역별로 취합하여 집사실로 신청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2. 전국특별집회 실시간 및 녹화방송 안내

집 회	집회 날짜	생방송 시간	녹화 가능 시간
경기권역	6.5(주일)	9:30분-13:40분	
서울강원권역	6.5(주일)	16시-18시	6.5일 19시 이후
호남권역	6.10(금)	19:30-21:30	6.11일 09시 이후
충청권역	6.11(토)	11:00-13:00	6.11일 19시 이후
경북권역	6.11(토)	19:30-21:30	6.12일 09시 이후
경남권역	6.12(주일)	10:00-12:00	6.12일 14시 이후

- * 경기 권역(인천포함) 6.5(주일) 고양 킨텍스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함)
- * 집회시간일 경우는 녹화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5.02.(월) ~ 2016.05.08.(주일))

지역	1지역 (83명)				2지역 (103명)				3지역 (104명)				4지역 (123명)				5지역 (98명)				6지역 (54명)				7지역 (19명)		계													
그 룹	학 인	인 신	청 년 1	대 학	간 석	구 월	만 수	장 노 2	주 안	청 년	인 신	동 호	청 학	송 도	가 자	석 년	가 청	연 학 1	하 학 2	검 관	담 당	검 관	상 신	부 평	청 년	산 고		효 성	작 전	계 인	학 신	중 신	운 납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21	14	17	11	11	9	7	16	12	12	11	20	19	6	27	17	18	24	18	18	9	6	13	20	8	16	11	12	10	27	23	26	22	15	15	14	10	12	7	584
기 도	3	3	2	2	3		2	4	4	7	2	3	11		7	4	11	6	4	9	5	2	3	8	3	6	6	5	2	3	11	14		5	6	3	4	7	4	184
그 룹	10	5	12	12	9			3		7		5	10		12	7	10	13	10		6	5	3			3		2	9	7	10	13	6	9	8	9	8	1	8	232
아래방송	10	8	7	7	4	1											8	5								2		10	23	16	13	13	7		7	3	7	151		
어린이	11				16				9				22				9				8				5		80													
아빠노래					10				9				2														21													
종교동무	8				5				12				14				11				10				2		62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5. 15 16-20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 -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

롬 1: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행사의 법도이다(시 103:6-7).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요소이며, 의는 행동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들과 규례들과 원칙들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다. 법정의 일은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일은 일들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두 극단인데, 이는 그분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복극’에 계시고 우리는 ‘남극’에 있다. 어떻게 복극이 남극을 접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겠는가? 이 의로운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에 따라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을 정죄하여 불 못 속으로 넣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분의 구원을 수행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그것을 의로운 방식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위해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신다. 그분은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의로운 요구들에 따른 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고 역동적이게 되는 열쇠이다(롬1:16-17).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데 능력이 있다.

의 보좌의 기초만큼이나 견고하고 확고하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무너뜨릴 수 없으시다.

로마서 3장 4절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따라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이 그분의 의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 그런데 왜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또한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한 면으로, 법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의에 따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에 의로운 방식으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절차이다. 다른 한 면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에 관한 로마서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은 법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에 따른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되었다면, 더욱 우리는 교화되거나 가르침 받거나 완전케 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화목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시편 89편 14절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

장 10절의 결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껏해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다. 화목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일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가운데 있는 유기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 유기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다. 구원함은 유기적인 문제이다.

로마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주되고도 중요한 여덟 구절을 지적하고 싶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17절은 은혜의 선물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18절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한다. 그 다음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의는 객관적인 의미다. 객관적인 의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는 유기적으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영생 「안에서」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이 로마서 5장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네 가지 중요한 용법이다. 생명에 대해 말하는 8장에는 보다 중요한 세 구절이 있다. 그것들은 2절과 6절과 11절이다.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 말한다. 6절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한다. 생명의 영은 일종의 법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의 속박에서 해방하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한다. 「죽음」이라는 말은 「죽어 가는」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의미한다.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어 가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원문 참조). 만일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면, 생명의 영은 일종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과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러한 생명은 내주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분배됨으로써 계속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다.

믿는 이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엡 4:13 딤후 1:19, 딤후 4:7). 두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이다(갈 2:20).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주관적인 행위, 곧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활동하는 믿음이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이다(롬 3:22과 각주1, 갈 2:16과 각주 1).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케 하시는 영이신(벧전1: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려고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어 우리로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다(행 16:31).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한다.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합당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동안, 그 영 곧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전파에 함께 하신다. 그러한 복음 전파는 여러분 밖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즉시 그러한 전파에 함께하시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은 회개하며, 그러한 분을 감상한다.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곧 여러분의 믿는 행위이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사실상 그분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다. 죄인들이 아닌 믿는 이들만이 이런 종류의 반응을 갖는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은 하나님이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을 즐겁게 해 드리는 오직한 길. 유일한 길이다. 나는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머리를 빗고 있을 때, 누가 빗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머리를 빗으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매들의 경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빗고 계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방식대로 머리를 빗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머리를 빗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고봉메시지 로마서 결정 연구2 5.6.7장에서 발췌〉

사도 바울의 기도에 따라 전진함

살전1: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인들을 먼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망의 인내 안에서 기억했다.

믿음의 역사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할 때, 자신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이 여전히 수고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믿음은 어떤 일을 당신 자신 안에서나 당신 자신에 의해서나 당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좋고 높은 느낌 안에 있을 때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만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느낌에 의해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얻을 수 있다(막 11:24).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되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되셨다.

사랑의 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매우 열렬하지만 그 후에는 지칠 수도 있다. 우리 가운데 수고의 필요가 있고 인내의 필요가 있다. 내가 활력 그룹의 문제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365일 안에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한 그것은 놀랍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 년 반 동안 수고하여 아무도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있노라

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지 의심스럽다. 만일 당신이 이러하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가장 열매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활력 그룹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까이 수고할 정도로 활력화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한다. 만일 당신이 반 년 동안 누군가를 꾸준히 찾아가 방문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가야 한다. 당신이 많이 수고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수고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외관상 여섯 달 동안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급우들과 동료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의 수고를 자극하는 능력이다. 이 사랑을 인해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제쳐 두고 수고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가 열매가 될지, 어디에서 언제 열매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오직 수고하는 것밖에 모른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외에도 우리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까이 반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로 인해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를 환영하여 들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것은 또한 오는 왕국의 보상에 있다.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긴 생애이다. 그러한 인내를 통해 우리는 각종 실망과 낙담과 불가능들을 정복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반대와 장애와 좌절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한 인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죄인들을 얻고 믿는 이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에 관한 사도의 말과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장 1절까지에서 그가 각 사람을 얻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분투함으로 수고함에 관한 그의 말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을진대 우리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제24과에서 발췌〉